

고척교회 예배 안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안으로는 사랑을 나누고 밖으로는 선교를 실천하는 좋은 교회”

◆ 예배안내

주일예배	1부	오전 7:00	은혜대예배당
	2부	오전 9:00	
	3부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3:00	은혜대예배당
수요기도회	1부	오전 10:00	은혜대예배당
	2부	오후 7:30	은혜대예배당
새벽기도회	1부	오전 5:00	은혜대예배당(하절기)
	2부	오전 6:00	꿈터 채플(동절기)
금요성령집회		오후 8:30	은혜대예배당
L-12 리더모임	수요일	오전 11:30	교구별 장소
		오후 8:30	은혜대예배당
M-12 리더모임	수요일	오후 8:30	5층 세미나실

◆ 교회학교 안내

영아부	주일 오전 11:00	비전센터 1층
유아1·2부	주일 오전 9:00 / 11:00	꿈의교육관 1층
유치1·2부	주일 오전 9:00 / 11:00	꿈의교육관 5층
유년1·2부 (초 1~3학년)	주일 오전 9:00 / 11:00	꿈의교육관 지하
소년1·2부 (초 4~6학년)	주일 오전 9:00 / 11:00	꿈의교육관 4층
중등부	주일 오전 11:00	꿈터 채플
고등부	주일 오전 10:30	문화공간 채움
청년부	주일 오후 1:00	은혜대예배당
은빛시니어학교	목요일 오전 10:30	꿈터 채플

* 모든 예배는 '고척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송출합니다.

◆ 상담실: 매주 (화) 오전 10시~오후 5시 Tel. 080-686-5871



1979년 4월 15일 창간 | 계간 | 제43권 제1호 통권 233호 | 2021년 4월 25일 발행 | 고척교회 역사홍보팀

우물가 Vol.233

2021 / Spring



Vol.233

2021 / Spring

고척교회

주 여! 이제 회복하게 하 소 서

스 10:1 • 12, 행 3:19~21



우물가 2021 Spring Vol.233

1979년 4월 15일 창간 | 계간
제43권 제1호 통권 233호
2021년 4월 25일 발행
고척교회 역사홍보팀
<http://new.gocheok.or.kr>

발행인 | 조재호 지도 | 박만서 부장 | 한영길 팀장 | 이재만
편집위원 | 이미선·김숙희·임용모·이철현·김일환·오은경
고척교회 | 서울시 구로구 중앙로 79 | Tel. 02.2686.5871~3 Fax. 02.2684.7677

마음을 전하세요~

고척교회 '우물가'와 함께 사랑하는 분들에게 마음을 전해 보세요.

To.

~~~~~

~~~~~

~~~~~

~~~~~

~~~~~

~~~~~

~~~~~

~~~~~

~~~~~

~~~~~

~~~~~

~~~~~

From.

~~~~~



# CONTENTS

## 차례

- 002** 위임목사 칼럼 ..... 십자가에서 부활로 이어지는 묵상
- 006** 기획특집 1 ..... 출발선에 선 세대  
 - 20대 청년, 종(種)이 다른 신인류  
 - 서로의 거리는 언택트, 서로의 마음은 콘택트  
 -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 013** 기획특집 2 ..... 매일묵상  
 - 우리 교회 '매일묵상'은 경건의 훈련입니다  
 - '매일묵상'과 사랑에 빠졌어요
- 018** 우물가 Twitter
- 030** 책, 알고 싶다 ..... 올리브 키터리지 by 엘리자베스 스트라우트
- 032** 여유 N 힐링 ..... 도심 속의 공원: 남산공원
- 036** 교육, 그거 쉬워요 .....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와 학교의 자율성
- 039** 우리 교회는?..... 각 부서 이야기  
 2021 고난주간 부활절 새벽기도회
- 054** 그림으로 읽는 에세이 ..... 그라티아 전시회





## 십자가에서 부활로 이어지는 묵상

| 조재호 위임목사

어렸을 때 한동네에서 뛰놀던 친구들이 있었다. 중학교에 올라갈 때쯤 한 친구가 가족과 함께 서울로 올라갔다. 그 후 그 친구는 복잡한 도시의 틈바구니에서 경쟁하며 생존해 나갔다. 심각한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투쟁적으로 살았고 그 결과로, 원하는 대학교 경영학과에 입학했다. 그러자 경쟁은 욕심으로 변져 나갔다. 과도한 욕심을 품고 치열한 생존경쟁을 이어가던 친구는 권력과 재력을 손에 넣었으나 인생을 뒤돌아볼 즈음, 60대 중반에 회복 불가능한 질병을 얻고 말았다. 그리하여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대학병원 특실에 누워 있었다.

병든 그를 만나러 고향 친구 두 명이 서울로 문병 왔다. 농사일로 검게 그을린 얼굴에 주글주글 거칠어진 손, 그 손에는 주스 한 박스가 들려져 있었다. 이제 볼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서울 친구와 으리으리한 특실에서 마주 앉은 고향 친구들은 할 말이 딱히 생각나지 않았다. 그래서 누워 있는 친구의 손을 꼭 잡고 힘내라는 말 한마디 남기고 병원을 나섰다. 버스 정류장으로 한참을 가다가 한 친구가 말문을 열었다. “여보게, 할 말이 있네. 아무리 시설 좋은 병원에 비싼 특실이라도, 우리가 늘 가는 동네 경로당보다는 못한 것

같아.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나?” “그걸 말해서 뭘 하겠나. 기계장치 요란한 병원 특실보다 햇볕 잘 드는 경로당이 백배 낫지.” 맞다. 적막함이 감도는 종합병원 특실보다, 시골 마을 어귀에 햇볕이 잘 드는 경로당이 백배나 낫다.

옴은 그의 인생길에서 불현듯 마주친 고난의 먹구름 가운데서 이렇게 탄하며 고백하고 있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욥 3:25~26)**

성경에서 가장 처절한 고백이다. 고난은 우리에게서 영혼의 평온함도, 삶의 안일함도, 일상의 휴식도 다 빼앗아 간다. 고난이 던져주는 것은 끝없는 불안이다. 우리 인생은 이런 짐을 지고 살아간다. 이 세상에 고난을 좋아하거나 고난을 두고 반갑다고, 잘 왔다고 반기는 이는 한 사람도 없다. 고난은 그 시험을 받는 사람에게 많은 고통과 아픔을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때로는 그 고통과 아픔 때문에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인생의 어두운 터

널로 들어가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두 손 들어 환영하거나 문간에 나가 어서 오라고 기다리지 않는다. 그 반대로 너나 할 것 없이 고난을 멀리하고 만나지 않으려고 피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살았던 수많은 사람 중에 오직 한 분, 예수님은 달랐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회피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하늘 보좌를 떠나서 이 땅으로 오실 때, 받을 고난이 기다리고 있음을 이미 알고 계셨다. 그분은 아버지 보좌 우편의 영광의 자리를 뒤로 하고, 낮고 낮은 고난의 자리로 오신 것이다.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린 바 되어야 할지니라” (눅 17:25)**

예수님이 받아야 하는 고난은 반드시 겪어야 하는 과정이다. 예수님은 고난이 있음을 아셨다. 그분은 고난을 돌아가려고 회피하지 않으시고, 피해 보려고 숨지도 않으셨다. 세례 요한은 저 멀리서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향하여 이렇게 외쳤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 1:29)**



예수님이 만나야 하는 궁극적인 고난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십자가 고난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으로부터 고난은 시작되었다. 자유로운 영이신 분이, 인간의 한정된 몸에 갇혀 있다는 것이 고난 중의 고난이다.

1995년 12월 8일, 프랑스의 세계적인 여성 잡지 《엘르(Elle)》의 편집장이며, 프랑스 상류 사회의 사교계를 주름잡았던 장 도미니크 보비가 뇌졸중으로 쓰러졌다. 그는 3주 뒤 의식을 회복했지만 전신마비 상태가 되었다. 유일하게 움직이는 것이라곤 왼쪽 눈꺼풀뿐. 곧 그의 존재와 외부 세계는 단절되었다. 오갈 수 있는 통로가 사라지고 막혀 버린 것이다. 그런데 얼마 후 그는 소통할 방법을 찾아냈다. 하나 남은 왼쪽 눈꺼풀을 통해 눈을 깜빡거리는 신호로 알파벳을 지정하고, 지켜보는 사람은 그 신호를 받아쓰기 시작한 것이다. 때로는 한 문장을 쓰는 데 꼬박 하룻밤을 보내기도 했다. 그런 식으로 마음의 생각들이 종이 위에 표현되어, 20만 번 이상 눈을 깜빡이며 15개월 만에 쓴 글이 ‘잠수복과 나비(The Diving Bell and the Butterfly)’라는 책이다. 두껍고 무거운 잠수복을 입은 것 같이 움푹달짝 못하는 신체,

발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서 그는 자유롭게 날아오르는 나비가 되고 싶었다. 책이 출간된 지 8일 후, 마침내 보비는 꿈꾸던 나비가 되었다.

자유로운 분이, 인간이라는 두꺼운 껍질을 입으셨다. 시간과 공간을 지배하시는 분이 제한된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오셨으며, 이 세상 역사를 홀로 주관하시는 분이 지저분한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다. 광활하기 이를 데 없는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인간의 모습으로 제한당하셨다. 남의 집 어두침침한 마구간, 그것도 냄새나는 여물통을 요람 삼고 태어나셨다는 사실은 낭만적인 스토리가 아니다. 그것은 고난의 서막이다. 고난의 절정은 바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이고, 온 몸이 찢기시고 목마르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730년 전, 이사야는 그분의 모습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다.

**“그가 찢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사 53:5)**

사람들이 조롱거리로 씩씩한 가시 면류관의 가시는 그분의 머리를 찢렸다. 움직일 때마다 살을 뚫고 들어가서 이마에, 얼굴에, 뺨에 피가 흘렀다. 대못으로 양손과 두 발이 찢리셨다. 그냥 찢린 것이 아니라 관통해서 깊숙이 박혔다. 그리고는 십자가 나무에 매달리셨다. 그리고 창으로 또 한 번 옆구리까지 찢리셨다. 정말이지 상상을 초월하는 극한의 상황이다.

주님의 십자가 고난은 절대로 고난 그 자체로 끝맺지 않는다. 주님의 십자가 가는 죽음에서 끝나지 않는다. 부활의 생명, 그 새로운 세상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너나 할 것 없이 인생에서 죽음은 마지막이요, 무덤은 인생길에 끝이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다. 이 세상의 작은 무덤은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크신 주님을 가뒤편을 수 없다. 어두운 무덤은 빛의 근원 되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오신 주님을 가뒤편을 수 없다. 죽음의 공간인 무덤은 영원한 생명의 주님을 가뒤편을 수 없다. 인간이 만든 무덤은 주님 앞에서 끝이 아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죽음은 마지막이 아니며 무덤은 끝이 아니다. 부활은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과 능력을 소유하게 만든다.

다산 정약용이 쓴 ‘중수만일암기(重修萬日菴記)’에 이런 글귀가 있다. 열흘만 살다가 버리는 집이 누에고치이고, 여섯 달을 살다가 버리는 집이 제비집이며, 1년 동안 살다가 버리는 집이 까치집이다. 그런데도 누에는 집을 지을 때 죽을힘을 다해 창자에서 실을 뽑아내고, 제비들은 자기 침이 다 마르도록 침을 뱉어 진흙을 이기고 빚으며, 까치들은 열심히 뱃짐을 물어 오느라 입이 헐고 꼬리가 빠져도 지칠 줄을 모른다.

세상의 미물들도 잠시 사용할 집을 짓기 위해 모든 것을 다한다. 주님의 고난 속에서 꽃을 피운 부활은 우리에게 궁극적인 승리를 가져다준다. 우리 구원의 완성과 우리 손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원한 처소 하늘나라를 가져온다. 주님의 부활로 우리는 영원한 나라와 역사의 새 아침을 만나게 된다. 잠수복을 입고 사는 것과 같은 우리네 인생에 껍질을 벗은 나비처럼 새 생명의 날개짓을 가져다주는 것이다.



## 20대 청년, 종(種)이 다른 신인류

교회 떠나 종교에 무관심한 연령층 ... 교회, 옷을 바꿔 입어야

| 박 만 서 목사 (협동)

한국 교회 20대 청년층이 점점 더 얇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출생인구 감소로 인해 교회에서도 인원이 줄어들면서 교회학교가 폐쇄되는 등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더 심각한 위기상황에 놓인 연령층이 오늘날 청년층이다.

정확한 통계는 나와 있진 않지만 청년층에 해당하는 20, 30대 기독교인 인구가 우리나라의 같은 연령대 인구 대비 3~5% 정도에 머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통계 자료를 통해 유추해 보면, 우리나라 청년층 연령대에 속하는 기독교인

인구는 5%에도 못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같은 청년층의 기독교 인구 급감 원인은 다양하다. 계속해서 낮아지는 합계출산율로 인한 인구 감소로 청년층 인구가 절대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또 유년 청소년층에서 벗어난 기독교인들이 더 이상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점도 원인이다.

통계적으로 보더라도 유년 청소년의 감소 현상보다 청년층(부)의 감소 폭이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청년층 기독교 인구 감소는 무엇보다도 의식의 변화에서 생각해 봐야 한

다. 정부 통계청이 조사해 발표하는 인구센서스(2016)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을 훌쩍 넘는 56.1%가 비종교인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비종교 인구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다. 전문가들 견해로는 비종교인 증가 추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여기서 특히 비종교 인구가 차지하는 연령대가 청년층이라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즉, 현재 우리나라 청년들은 종교에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중 기독교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낮다는 것이다. 이는 낮은 단계를 넘어 안티기독교로 전환하는 수준이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된 이유는 청년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을 보면 알 수 있다.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21세기교회연구소가 청년층인 19세에서 39세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이들의 최대 관심사는 경제적인 문제와 일자리·주택·건강·결혼·학업·자녀양육 등이며, 종교에 대한 관심은 하위권인 8위로 밀려나 있다. 이런 바탕에서 그들은 스스로 '불행한 세대'(69%)라는 회의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그렇다고 오늘의 청년 세대에 희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청년들은 신앙 수준이 높을수록 자기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기독교청년을 대상으로 '자신의 현재 생활에 대해 만족하는가?'란 질문을

했을 때 '만족한다'(34%)에 비해 '불만족한다'(38%)가 다소 높게 나타났지만, 이 질문에 대한 응답자의 신앙수준별로 보면 기독교인문층(24%)에 비해 그리스도중심층(65%)이 삶에 대해 더 만족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 같은 자료를 근거로, 교회에서 청년층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충분하다. 아동·청소년기에 교회에 출석했으나 청년이 되면서 교회 공동체를 떠난 청년층을 교회가 적극적으로 품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그럴 때 청년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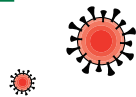
앞서 생각해 봤듯이 기독교청년인구 감소는 곧 한국 교회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현재 청년층 기독교인 인구가 5%일 때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한국 교회 기독교 인구는 5%로 급락하게 된다. 현재 전체 인구 대비 20%에 육박한 기독교 인구에 안주할 수 없는 이유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첨단 디지털 시대에 태어나 성장한 청년층을 두고 기성세대와 비교해서 '종(種)이 다르다'고 평가하고, 나아가 '신인류'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이들을 이해하려면 기존 아날로그 사고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다. 청년 세대에 필요한 방법에 따라 그들을 위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때이다. 교회도 이제는 옷을 바꿔 입어야 한다.

# 서로의 거리는 언택트, 서로의 마음은 콘택트

- 고척교회 청년부, 온라인 사역을 하면서

| 이 강 웅 간사 (청년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만나지 못하니 서로 관계도 소홀해지고 스스로 무력해지는 것이 요즘 현실인 것 같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청년들은 알바를 못 구해 생활고에 시달리는가 하면, 면접을 볼 때나 직장에서는 “너, 교회 다녀?”라는 물음에 곤경에 처하기도 한다. 교회에 가기 위해선 일부 만남을 뒤로하고 동선을 줄이기도 한다. 집에서 안 믿는 부모는 “교회가 밥 먹여주냐?” “꼭 가야 해?” 하며 핀잔주기 일쑤고, 또 다른 청년들은 그동안 외면했던 가정의 문제에 직면하며 광야의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이런 시기가 나름대로 장점도 있다. 예를 들면, 집에서 학교 수업을 들을 수 있고 직장 업무도 집이라는 편한 환경에서 효율적으로 하면서 회의를 하거나 할 때도 장소에 제약이 없다. 코로나19 상황이 사그라지나 싶으면 다시 점화되기를 반복하다 보니, 아직은 집을 나서야 하는 상황이 부담스럽다. 코로나19가 완전히 종

식되기를 기다리는 게 어려워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종종 모이기도 한다. 그런 조심스러운 행동도 이해하지만, 그로 인해 코로나19 감염이 늘거나 전파자가 되어 상황을 악화시키는 모습을 볼 때 매우 안타깝다. 이 같은 상황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직접 만나 말씀을 듣고 교제하고 싶은 마음을 꼭 참고 오프라인을 대체할 새로운 방법-온라인-을 선택해서 사역해나갔다.

교역자들은 사역자 양육을 준비할 때 쉽고 짧게 진행하면서 청년들에게 핵심적인 내용을 어떻게 인상 깊게 전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 청년들은 온라인의 강점을 살려 미리 자료를 받아서 스스로 생각해보고 나누고, 또 영상도 다시 돌려보며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다. 진행사항에 대한 피드백을 교역자와 직접 소통하여 작년보다 더 완성도 있게 사역자 그룹의 전체 양육을 2020년 10월에 4주간 줌(Zoom)으로 진행했다.



2020년 9월에는 줌으로 4주간 큐티학교와 8주간 성서특강 전도서, 12주간 제자학교를 진행했다.

큐티학교에서는 자체 교재를 제작해서 묵상할 때 필요한 이론과 실천을 나누며 스스로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습관을 기르는 시간을 가졌다.

성서특강 전도서에서는 책 <일상의 신학, 전도서>를 선정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지혜가 무엇인지 같이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제자학교에서는 자체 교재를 제작하고 책 <김동건의 신학이야기-모든 사람에게>를 통해 신학적으로 생각해보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며 남에게 쉽게 할 수 없었던 이야기들을 나누며 개인의 신앙과 신학을 세우는 시간을 가졌다.

2021년 1월 17일부터 2월 28일까지 매주 마을장-리더-사역팀장-헬퍼 순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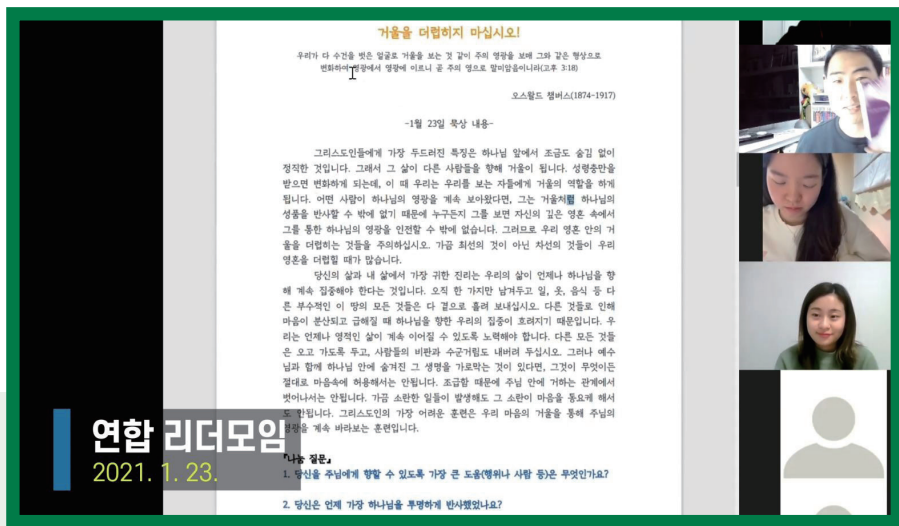
로 각 그룹의 대표자 1명에게 십자가 목걸이를 수여했고, 부장단에서 돌아가며 임명 기도를 맡아주었다. 그 외의 청년들은 각자 소개 영상을 찍어 하나의 영상으로 만들어서 청년들에게 소개했다. 향후 부장단과 교역자가 청년들에게 인사하는 시간을 가지려 한다.

2021년 1월 23일과 30일에는 줌으로 1, 2부 전체 리더 모임을 진행하면서 평소 교류하지 못한 각 부서 리더십들과 함께 말씀을 들은 뒤, 각 소그룹으로 흩어져 1, 2부가 함께 섞여 말씀에 대해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다.

2021년 1월 31일에는 코로나19 이후 한동안 하지 못한 중보기도 모임을 열어 다시 기도를 회복하는 시간을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가졌는데, 앞으로도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진행해볼 예정이다.

2021년 2월 말에는 줌을 통한 수련회도 할 계획이다. 요한복음의 7가지 표적을 주제로 하여 영상을 제작해서 공유하





## 우 리 는 예 배 자 입 니 다

| 장 기 훈 목사 (청년 공동체)

우리 청년들은 믿음을 지키기도, 예배를 드리기도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방역을 위해 교회에 가지 말아 달라고 공문으로, 말로 전달하고 분위기만으로도 알 수 있게 전달합니다. 그야말로 전방위로 예배에 대한 압박을 받는다는 것이 과장은 아닌 듯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청년이 회사에서 편한 위치에 있을까요? 아무리 시대가 좋아졌다고 해도 눈치를 보게 됩니다. 회사에 어려움을 주는 일은 누구라도 피해야 하는 게 맞으니까요. 국가고시나 중요한 시험을 준비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제대로 시험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고민하는 청년도 많습니다.

현장 예배가 가능하다고 해도,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많은 유혹과 방해되는 요인이 있고, 집중력도 매우 요구됩니다. 가정에서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경우는 온라인 예배가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청년 공동체는 지금 뜨겁게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목장 모임도 점차 살아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목장 모임 자체를 진행하기 어려웠습니다.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치며 현재 줌(Zoom)으로라도 GBS 성경공부를 진행하고, 묵상 나눔과 기도제목을 나누고 있습니다. 1부에서는 온라인으로 수련회도 가졌습니다. 물론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지만, 감사함으로



면 청년들 스스로 시간을 정해 묵상해보고 온라인으로 찬양하고, 또 청년들의 사연을 모아서 나눠보는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 서로의 삶을 공유하면서 소통과 공감의 시간을 가져보려 한다. 더불어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상품을 향한 청년들의 열정을 오프라인만큼이나 느껴보는 시간을, 강의를 통해서는 평소에 너무나 당연하게 여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에 대한 의미를 다시 정립해보고, 나눔을 통해 강의에 대한 생각을 나누며 각자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한다.

2021년에는 특별한 프로젝트가 있다. 바로 '복음 청년' 프로젝트인데, 복음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고 풍성하게 나눌 수 있도록 교재를 만들어 리더에게 가이드 라인을 제공하고, 리더와 헬퍼들이 묵원을 한 명씩 만나서 온/오프라인을 병행하

여 복음 양육을 진행해보려고 한다.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또 진행하면서 청년들과 교역자들의 마음이 연결되고, 그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나 싶다.

물론 처음부터 원활하게 진행된 것은 아니다. 작년에 처음 진행했을 때는 새로운 시스템을 어색해하며 집중도도 오프라인에서보다 현저히 떨어졌다. 하지만 지금은 다들 제법 익숙해져서 점차 활용 범위를 넓히며 조금씩 활성화하는 모양새다.

이제는 온라인으로 안전하게 모일 수 있는 익숙한 방법이 있으니 더 이상 만나지 않거나 관계를 소홀히 하면서 무력해질 이유는 없다. 다시 말씀과 기도를 회복하고 서로 뜨겁게 교제하며 청년 공동체가 복음으로 하나 되기를 소망한다.

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보면, 우리 청년 공동체의 교회는 넓어졌습니다. 근방의 고척 동과 개봉동뿐만 아니라 고양·천안·오산·인천·용인·충청도 지역 등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실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믿음을 실현하며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보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청년들이 보입니다.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를 섬기는 우리 청년들이 그러합니다. 어그러지는 시대 속에서, 때때로 세상의 지탄을 받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드리는 청년들입니다.

우리 청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것을 믿습니다. 여전히 눈앞에 여러 난관이 있고, 우리의 믿음은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강하신 주님께 서 우리를 반드시 세우실 것입니다. 청년 공동체는 2021년 '복음' 하나 붙잡고 나아갑니다. 복음청년이 되어, 예배자로 살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사랑과 격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우리 교회 '매일묵상'은 경건의 훈련입니다

김명수 목사 (매일묵상 담당교역자)



우리는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며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지치고 좌절되는 마음이 있지만,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버티는 힘이 됩니다. 현실의 위태로운 상황은 믿음의 지체들이 더 기도해야 하고, 더 깊이 있는 경건의 삶으로 살아가야 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되는 극히 평탄한 일상의 회복이 중요한 과제가 됐습니다.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그 중심에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알게 됐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소중한가를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한 한 해를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값진 열매를 맺는 원동력은 말씀을 읽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깊이 있게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말씀 묵상이 우리 삶에 중요한 이유는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일상으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묵상'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는 '하가(Haga)'인데, '말하다' '신음하다' '곰곰이 생각하다'란 뜻입니다. 비둘기가 아침마다 반복해 내는 소리에서 인용한 단어입니다. 또 하나는 '시하(Sihah)'로, '숙고하다' '암기하다' '생각하다'란 뜻을 가집니다. 단어의 어근을 볼 때 묵상이란,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삶에서 자연스럽게 반복적으로 하는 생각을 뜻합니다. 즉, '말씀 앞에 갈급함이 있고 매일 반복적인 일상이 되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며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말씀 묵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 의미로 <매일묵상>은 하나님과의 사이가 돈독해지며 일상의 삶 가운데 복을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깊이 있는 교재입니다. 이를 통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 역사, 계획, 약속, 명령을 우리의 일상에서 곱씹어 드러나게 하는 믿음의 행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성경 묵상은 믿음의 기본 자세임이 분명합니다.

**“오직 여호와와 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편 1:2)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8)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하나이다”**

(시편 19:14)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시편 119:97)

2021년 우리 고척교회는 정책적으로 목회의 방향성을 말씀 묵상에 두고 힘차게 전진하며 평안의 향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를 지나며 말씀 묵상을 통해 이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우리의 경건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인식하고 있습니다. 가정예배가 살아나고, 목장예배가 말씀을 중심으로 회복해 나가는 모습을 보며 말씀이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고척의 공동체가 영아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두 매일 같은 말씀, 같은 찬양, 같은 기도제목으로 하루를 맞이하고 또 하루를 보낼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함께하시며 일하고 계심을 믿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말씀 묵상을 통해 소그룹이 건강해지며 목장의 예배가 교회 공동체의 회복을 이룬다는 확신을 가지고 열심을 다하여 <매일묵상>의 경건훈련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와 고척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활용방법을 공유하여 성도들의 일상에 <매일묵상>이 깊이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으며, 말씀 묵상 세미나를 통해 묵상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전 교우가 함께 묵상하면서 기도하며 삶에 적용하는 훈련이 있음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의 열심과 훈련 속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임재하셔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고척의 <매일묵상>은 많은 분이 헌신하며 투자한 시간과 노력이 맺은 귀중한 열매입니다. 먼저 위임목사님께서 목회의 방향과 신학의 중심을 잡아주시면, 부목사님들이 묵상의 말씀을 준비하면

서 논의 끝에 본문의 묵상 내용이 정리됩니다. 여기에 성도님들의 간증 수기, 부서 사역의 활동사항, 목회 일정 등이 취합되면 편집을 거쳐 묵상집에 실리게 됩니다. 이와 함께 인쇄가 마무리되어 우리 손에 오기까지 묵상 팀원들이 직접 들고 나르는 수고로 땀을 흘립니다. 매월 새로운 묵상집이 나오기도 전에 다음 호를 준비해야 하는 바쁜 일정에도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는 성도님들이 계시기에 편집하는 내내 신나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는 <매일묵상> 교재를 통해 우리가 자녀임을 확인합니다. 또,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알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준비단계에서부터 삶에 실제로 적용하는 그 순간까지 <매일묵상>을 놓치지 않는다면 말씀 속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올 한해 우리 고척 공동체가 <매일묵상>의 경건훈련으로 삶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 ‘매일묵상’과 사랑에 빠졌어요

| 심 형 구 장로 (기쁨 1)



가끔 ‘한마디 듣겠다’고 찾아온 후배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 없어 진짜로 한마디 톡 던진다. “CEO는 숫자로 말하고, 리더는 몸으로 말한다.” 나 스스로 평생 신념처럼 여기고 살아온 말이다. 나는 오늘도 몇 달란트 받은 자로 살아갈 것인가! 목표를 세우고 회사로 발걸음을 옮긴다.

내 방 벽 중앙에는 목사님이 심방하시면서 축복해 주신 시편 23편 말씀 중 핵심 소절이 담긴 액자가 걸려 있다.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로 시작하는 그 말씀을 방문하는 사람마다 바라보며, “고척교회가 어디에 있나요?” “장로님이시라면서요” 하는데, 영적으로 꽤 큰 부담을 느끼는 순간이다. 그런데 감사하다. 주님께서 예비하신-교회 자랑, 복음 이야기, 주께서 내 평생 함께한 사연 등-술한 생명의 언어들이 오갈 수 있는 찬스이기 때문이다.

하루를 결산한다. 새벽기도의 다짐과는 달리 어제와 다른없는 내 모습을 확인한다. 반복되는 일상, 매너리즘에 빠져 걸모양만 있고 열매는 없음이 여전한 도덕적 그리스도인임을 계속 고백한다. “주님, 제가 이렇게입니다. 믿음 없는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앞에 결국 무릎을 꿇는다.

### “Chuch in my hand” (내 손안의 교회)

지난해 말 <매일묵상>을 받아든 나의 첫 고백이었다. 그와 더불어 나만의 소감과 활용법은 다음과 같다.

1. 두껍지 않아 한 손에 잘 들어왔다.
2. 과함과 부족함이 없는 한날의 일용할 양식이 그 안에 빼곡히 잘 담겨 있었다. 마치 만나처럼.
3. 컴팩트하게 잘 정리된(그것도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기도로 직접 만든), 이 세상에 몇 부 안 되는 정말 귀하고 소중한 책이었고,
4. 매일 새벽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며 기력을 재충전하는 영적 에너지이저(Energizer)였다.
5. 전날 밤에 미리 예습하고, 다음 날 새벽기도회를 통해 복습도 한다.
6. 하루 행할 계획과 또 기도제목을 묵상집 안에 구체적으로 기록한다.
7. 묵상집을 들고 출근길에 나선다. 책상 옆에 두고 그 말씀대로 하루의 행함을 중간 체크한다.
8. 잠들기 전에 묵상집을 펼쳐 ‘오늘은 몇 달란트를 남겼을까’ 계수하며 감사의 고백과 함께 나의 부족함과 불순종을 주님께 내려놓으며 도움을 요청한다.

“주님, 저 오늘 이렇게 살았어요. 평생토록 신앙생활을 해 왔는데도 저 아직도 이렇게 못났어요.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살려고 노력하는 제 마음을 주님, 보고 계시지요?”

나이 먹었지만, 주님 앞에서는 더 어린애가 된다. 이렇게 나는 오래 묵은 어린아이가 되어 주님께 일일이 고백한다. 그리고 이런 내게 친밀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분의 말씀을 영혼으로 느끼며 잠든다. 그때 침대 밑의 <매일묵상>도 나와 함께 잠든다.

### 나는 오늘도 그와 함께 출근했다.

### 두 달 전부터 사랑에 빠졌기 때문이다.

기도와 사랑으로 만들어진 <매일묵상>. 이 묵상집은 언택트 시대에 우리의 신앙에 도전하는 거대한 코로나19 세력과 싸움에서 승리하는 영적 핵무기이고, 교회와 성도와 가정을 주님께 이어주는 ‘올 라인 브리지(All Line Bridge)’다.

“크고 세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장로 은퇴 단상

## ‘회개의 자리, 기도의 자리’

| 라 창 호 원로장로 (사랑 25)



“  
나는 죄인입니다.  
”

시무장로 22년을 마무리하고 2020년 연말에 은퇴하는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지난 22년은 전혀 짧지 않은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온전히 고백하길 원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좋은 교회, 고척교회로 인도해주셨고 영적 지도자인 귀한 목자와의 예비하신 만남을 주셨으며, 또한 밭을 가는 농부의 심정으로 열심히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절 도우셨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결과로, 주님께서는 믿음의 계보를 자녀들에게도 물려줄 수 있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열매를 허락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한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장로로 세움 받는 순간, 마음속 깊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하신 주님 말씀을 잊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주의 종을 기

쁘게 하는 것이고, 주의 종을 기쁘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믿습니다. 주의 종을 섬기는 일에 앞장서고 순종하며 머리 되신 예수님을 따라 몸 된 교회로서 충성할 것을 하나님과 교회 앞에 선언한 일도 주님께서는 늘 잊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의 종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실천하고자 했는데, 은퇴 자리에서는 참으로 부족했던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이란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교회를 만들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며 기름 부어 주신 목회자를 순종하는 자세와 기도로 돕는 것이라고 봅니다.

지난 12월 시무장로로서 마지막 날을 보내며 그동안 함께해 온 동역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인사했습니다.

「 2020년 12월 31일 송년의 아쉬움으로 귀하신 장로님께 감사의 마음을 올립니다.

그동안 부족한 종의 허물을 항상 감싸 주시고 기도의 울타리가 되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은퇴자는 은퇴하는 순간부터 ‘회개의 자리’로 가 ‘기도의 자리’에 서야 하기에 남은 삶의 전부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 자신보다 중보의 기도자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이렇게 할 때 믿음의 계보로 자녀들에게 약속된 축복도 계승될 것을 믿으며 달려가겠습니다.

더불어 고척교회 공동체를 짊어진 거룩한 장로님들이 영적 권위를 가지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 가시도록 응원하며 기도로 함께하겠습니다.

2021년 새해에도 회복의 은혜, 풍성한 축복의 은혜가 넘치시길 기도드립니다. 그동안 받은 중보의 기도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 사랑에 빛진 자 라창호 장로 올림 -

이 내용을 존경하는 김제건 원로목사님도 보신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원로목사님이 주신 말씀을 올리며 은혜를 함께 나눠 봅니다.

「 존경하는 라 장로님께  
값진 은퇴사입니다.  
‘은퇴하는 순간부터 회개의 자리, 기도의 자리’ 진리입니다. 감동 먹었습니다.」

두 번째로 주신 말씀은 이러합니다.

「 목사님들은 장로님들을 만나는 것이 복이 되고, 장로님들은 목사님을 만나는 것이 복입니다. ‘회개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이 두 가지를 체험하며 저 하늘나라를 염원하는 것이 복이라 생각합니다.

— 김제건 드림 —

이 글을 통해 은퇴자로 살아오시며 회개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켜 오신 원로목사님께 감사 인사를 드려 봅니다.

은퇴의 길목에서 뒤를 돌아보며, 크고 작은 일로 가슴앓이도 했음을 고백합니다. 특히 은퇴를 앞둔 시점인 2020년 하반기에 있었던 일은 제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아픈 상처로 남았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주의 종을 섬기는 일에 앞장서고 늘 순종하며, 교회에 충성할 것’을 다짐했거늘 …… 지난 20여 년을 한결같이 동역해 온 위임목사님과 끝까지 함께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은 가슴 아픈 일입니다.

지난 2020년 하반기에 갑자기 밀려온 쓰나미 같은 사탄의 공격으로 교회와 성도들의 가슴에 깊은 상처가 남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에 교회 안에서 있었던 일은 시무장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아마 동역했던 모든 장로님도 같은 마음으로 가슴 아파하셨을 것입니다.

주변 교회들을 돌아볼 때 공동체를 흔들고 목소리를 높이는 거짓된 자들의 잘못된 행동을 여러 번 목격한 바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이들은 신앙인이자기보다 위선적인 종교인에 불과하지 않은가’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결코 사람이 흔들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고, 세상에 대하여는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악한 영은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승리하며 높아집니다. 이번 일들을 겪으며 언제나 선한 것만 남기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신 것이 바로 ‘회개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부족한 저를 인도해 주신 증거입니다. 이 일을 통해 눈물로 기도드리게 하였고,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인자하신 주님께서는 긍휼로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내 모습이 어찌하든 상관없이 더 크신 사랑으로 용서해 주신 그 십자가를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붙들고 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고척 가족들도 그 십자가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 교회를 사랑하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사랑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부족한 종을 일꾼 삼아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사랑이신 하나님 한분께 모든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별의 시간

- 시어머님을 하나님 품에 의탁드리며

| 윤 정 희 권사 (기쁨 1)



지난해 12월, 시어머님 장례예식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도와 조문으로 함께 위로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제 시어머님은 13년 전 시아버님께서 하나님 품에 안기신 후에 서로 자유롭게 살자고 하시며 자식들의 부담을 덜어주시고 혼자 지내셨습니다. 지난 1년 동안은 퇴행성 관절염으로 걷기가 불편하셔서 밖에 나가지 못하고 집에만 계

셨는데, 추석 때부터는 소화가 잘 안 되다며 제대로 드시지 못하더니 급기야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앉고 일어설 때 이리저리 부딪히는 횡수가 잦으셨습니다. 아무래도 병원에서 수액을 맞고 기력도 회복하시고 검사까지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막내 시동생이 병원에 모셔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기로 약속한 날 시동생이 어머님 댁에 가보니 어머님은 쓰러지셔서 의식이 없으신 상태였습니다. 급히 119를 불러 병원 응급실로 이송한 후, 어머님께서 저혈당 쇼크 때문에 쓰러지신 것을 알게 되었고 다른 곳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가지 검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췌장암 4기라는 충격적인 진단을 받았습니다. 담당 의사는 이미 암 세포가 간, 폐, 난소로 전이된 상태이고 90세 고령인 어머님께 병원에서는 진통제와 수액 정도만 줄 수 있을 뿐 치료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2

주 이상 병원에 입원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의사는 어머님 상태로 볼 때, 한두 달 정도 버티실 것 같다며 집으로 모시든지 요양병원으로 모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진단을 받고 급히 4형제의 가정이 모여서 의논을 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어머님께서 정리하실 수 있도록 가족 친지들을 비롯해 보고 싶은 분들을 만날 수 있게 해드리고 암으로 인한 고통도 줄여드리야 할 텐데, 두 가지를 다 하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형제들은 고민 끝에 어머님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호스피스 병동을 알아보고 입원을 위해 면담했습니다. 호스피스 병동 담당 의사는 다른 건 몰라도 환자의 고통은 없게 해 드릴 수 있다고 장담하더군요. 입원하려면 보통 두 달 정도는 기다려야 한다는 말에 걱정했지만, 다행히 다음 날 병원에서 내일 바로 입원 가능하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호스피스 병동에서는 환자와의 자유로운 면회가 불가능한 상태였고, 간호를 위해 가족 중 한 명만 환자와 함께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형

제들이 교대로 자리를 지키기로 했습니다. 저는 지난 4년 동안 매일 안부 전화를 드리며 어머님께 극진했던 막내 서방님한테 '어머님께 사랑하고 감사하다'는 표현을 많이 해드리고, '시편 23편을 읽어드리면 좋겠다'고 권면했습니다. 어머님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고 계실지도 모르니 하나님께서 어머님과 함께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어머님을 안위하심으로 무서움도 두려움도 없게 해 달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은 아들의 목소리를 들려 드리면 어머님께서 힘을 얻지 않으실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님은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하시고 이를 뒤부터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셨고, 계속 잠만 주무시면서도 통증이 있으신지 얼굴을 찌푸리시며 신음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돌아가시기 전날, 어머님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불규칙한 호흡을 하셨습니다. 산소포화도도, 혈압도, 맥박도 잘 잡히지 않아서 손으로 측정하는 혈압계로 여러 번 측정하고서야 60/30이라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다시 측정해도 60/30. 불안한 마음이 엄습해 왔습니다. 담당 간호사는 저를 조용히 부르더니 병실을 1인실로 옮기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곧



임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었지요. 저는 남편에게 전화했고 가족들이 다 모이게 됐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어머니 임종이 가까운데도 3명 밖에 병실에 있을 수 없고, 종교 행위도 일절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넷인데 그럼 누구를 병실에서 나가라고 하나고 했더니, 담당 간호사가 안타까웠던지 아들 넷이 함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어머니가 다니시던 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모든 형제와 손주들까지 다 와서 교대로 어머니께 마지막 인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 후 늦은 밤, 네 형제와 저만 남게 되었습니다. 아들과 손주들을 만나서서인지 어머니 호흡이 조금 안정되는 듯했지만, 혈압은 여전히 70/40으로 안심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막내 서방님이 저에게 성경을 달라고 하더니 '시편 23편'을 읽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몇 번 반복해서 읽은 뒤 다른 구절 어디를 읽으면 좋겠느냐고 해서, 저는 시편 91편을 권했습니다. 91편을 다 읽고 나서 또 어디를 읽으면 좋을지 물어 "시편 1편부터 읽어드리세요"라고 했더니, 막내 서방님은 그 부분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읽다가 힘이 들었는

지 셋째 형인 제 남편에게 말씀을 읽으라고 넘겼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읽고, 이번에는 둘째 형에게 넘겼습니다. 둘째 아주버님은 신앙이 없는 아들인데도 거부하지 않고 어머니께 성경을 읽어드렸습니다. 이렇게 밤이 새도록 시편을 읽어드리다가 힘이 들면 찬송가를 이어폰으로 들려 드리기를 아침까지 계속했습니다. 밤새 아들들 목소리로 어머니 귀에 말씀을 읽어드렸기 때문인지 어머니는 잘 견디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 첫째와 둘째 아들은 출근하고, 셋째와 넷째 아들과 며느리들이 병실을 지키면서 시간이 되는데로 아들들이 시편을 열심히 읽어드렸습니다. 잠시 쉴 즈음 막내 동서가 저한테 "형님, 우리 같이 어머니께 찬송가 불러드려요."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러자고 하고,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찬송가 불러 드릴 테니 이 찬송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비취 주시는 그 빛 따라 하나님 손잡고 함께 가세요."

두 며느리가 부르는 찬송에 이내 두 아들도 동참했습니다. 그렇게 한 시간을 훨씬 넘게 찬송을 불러드렸고 어머니는 잘 견디셨습니다.

병원에 여럿이 같이 있을 수 없다 보

니, 저녁에 큰아들 가정과 교대하면서 "어머니, 저 집에 잠깐 다녀올게요" 하며 인사드리고, 남편과 저는 병원에서 30분 남짓 걸려서 집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한 지 5분 만에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임종이 한 시간 정도 밖에 남지 않은 것 같다는 얘기였습니다. 급하게 다시 출발했지만, 병원으로 가는 중에 어머니께서 운명하셨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연세가 90세이다 보니 이별이 가까이 왔음은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이별은 참 아프고 슬프습니다. 병실에 혼자 계실 때 어머니는 얼마나 외롭고 두려우셨을까요. '너희들 힘들어서 어찌니?' 하고 미안해하시던 어머니의 모습을 생각하니 마음이 저려 왔습니다. 장례식장에서도 시동생은 어머니께 읽어드리던 시편 말씀을 시간 나는 대로 읽었고, 결국 끝까지 다 읽었습니다.

활짝 웃으시는 영정사진 어머니의 얼굴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만약에 저혈당 쇼크로 그냥 떠나셨으면 어머니께도, 자식들에게도 큰 상처와 아쉬움으로 남았을 텐데 ..... 비록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딱 2주였지만, 그 시간이 어머니와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시편 말씀을 읽어드리며 찬송가를 불러 드림

으로 어머니가 천국 가시는 길을 환송해 드릴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시간임을 고백하며 감사하고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손위 형수라지만 형수가 어머니께 시편 말씀 읽어드리기를 권한다고 시동생이 순종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바람은 아직 신앙이 없는 둘째 아주버님의 가정이 어머니의 믿음을 따라 예수 믿고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해 봅니다.



## 건강생활법

10% 더 하지도,  
부족하지도 말라

정 동 춘 집사 (섬김 남성목장, CRC운동기능회복센터 원장)

## 어떻게 생활해야 건강해질까?

답은 자율신경의 안정을 통해 질 좋고 깨끗한 혈액을 세포단위까지 보내주는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다. 잘 나가는 사람일수록, 젊고 매력적인 사람일수록 거의 대부분 자율신경이 매우 안정되어 있다.

자율신경은 내장기관, 특히 혈관을 조절하는 신경을 말하는데,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구성된다. 차에 비유하면, 교감신경은 액셀이고 부교감신경은 브레이크에 해당한다. 교감신경이 활성화하면 혈관이 수축돼 혈압은 상승되면서 적극성을 띠게 된다. 부교감신경이 활성화하면 혈관이 이완돼 혈

압은 내려가면서 기분이 편안해진다. 몸과 마음이 양호한 상태에 있다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균형을 이룬 상태를 의미하고 세포단위까지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지게 된다. 안정된 자율신경은 무리한 활동, 집착, 잠 부족, 머리를 많이 쓰는 것(생각 과다, TV·PC·스마트폰 사용), 운동 부족 등에 의해 깨진다. 자율신경 균형이 깨지려 하거나 깨졌을 때 그 회복법에 대해 알아보자.

•회복법 ① 심호흡 하기: 힘들거나 일이 뜻대로 잘 풀리지 않을 때에는 초조해하지 말고 잠시 멈춰 서서 천천히 호흡



을 해보자. 수축했던 혈관이 이완돼 질 좋은 혈액이 몸 구석구석까지 흐르기 때문에 몸도 마음도 생기를 되찾아 일의 능력도 오르게 된다. 1~2초 동안 코로 들이마시고 3~10초 동안 입으로 내쉬는 2:8 호흡법이 효과적이다. 일하는 중간에도 좋고 전철 안에서도 좋다. 하루 3분 정도 호흡훈련을 하면 알아지기 쉬운 호흡을 천천히 깊게 할 수 있고 자율신경 균형도 몰라보게 개선된다.

•회복법 ② 운동량 늘리기: 따로 운동하기 어려운 사람은 전철이나 버스에서는 앉지 말고 3층까지는 역이든 백화점 이든 회사든 에스컬레이터를 타지 말고 계단을 이용하자. 그래서 운동량을 늘리자. 피곤하거나 아플 때는 예외다. 언제 어디서든 특별한 기구 없이 행할 수 있는 운동법이라야 효과적이다.

•회복법 ③ 숙면 취하기: 질 좋은 수면을 위해 낮에 집중해서 걷자. 깊은 수

면에 빠질수록 부교감신경은 활성화한다. 대사도 촉진돼서 살이 잘 찌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혈액의 질도 좋아진다. 수면의 질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낮 시간 동안의 활동이다. 수면은 몸속의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을 얼마나 만드느냐에 달려 있다. 멜라토닌 생성을 위해서는 낮에 멜라토닌의 재료가 되는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을 만들어야 한다. 세로토닌은 적당한 집중과 운동에 의해 생성된다. 출근 시간을 이용하면 따로 시간을 내지 않아도 20~30분 집중해서 걸을 수 있으니 습관을 들이면 좋다.

•회복법 ④ 천천히 말하고 움직이기: 불안, 초조함, 분노를 느낄 때는 교감신경이 흥분돼 혈관이 수축되고 말도 빨라지면서 몸의 움직임도 서둘게 된다. 말이 빨라지고 몸의 움직임이 빨라지면 혈액도 걸쭉해지고 피부에 윤기도 점점 사라진다. 자율신경은 계속성이라



는 특징이 있어서 아침에 천천히 움직여 맞춰진 자율신경의 균형은 그날 온종일 유지된다. 그러므로 아침에는 30분이라도 좋으니 일찍 일어나 천천히 나갈 준비를 하면 좋다. 이렇게 하면 내장기능도 원활해지고 몸도 피곤하지 않을뿐더러 피부도 계속 좋은 상태를 유지한다. 게다가 말실수 혹은 빠른 움직임으로 인한 무리를 피할 수 있고 판단력과 직감력도 좋아져 일과 인간관계 등 모든 면에서 잘 풀릴 것이다.

•회복법 ⑤ **평정심 유지하기**: 평정심은 의식해야 유지된다. 의식하는 것이야말로 신경을 잘 안정시키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우리는 평정심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회환경에서 살고 있다. 만원 전철을 타거나 상사에게 안 좋은 말 한마디만 들어도 평정심을 유지하기 어려워진다. 자신의 자율신경을 안정시키는 방법은 의식하는 것이다. 오늘은 웬지 실수를 할 것 같은 예감이 드니 조심해야겠다는 식으로 의식만 해도 어느새 50%는 개선된다. 2:8 호흡법을 하면 나머지 50%도 회복시킬 수 있다.

•회복법 ⑥ **내일 준비하기**: 다음 날을 미리 준비하자. 대체로 전날 저녁 6시 정도가 되면 다음 날 학교나 직장을 가

야 한다는 생각에 다소 부담을 갖게 된다. 이런 부담감을 방지하면 나빠진 자율신경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게 될 수 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전날 밤 9시 이후에는 반드시 다음 날을 위한 준비 의식을 가져야 한다. 먼저 수첩을 보고 내일 일정을 확인한다. 입을 옷, 넥타이 등도 미리 골라 둔다. 늦은 시간에 귀가했다면 천천히 반신욕과 스트레칭을 해서 몸을 풀어준 다음 입면에 든다. 이렇게만 해도 마음의 여유가 생겨 우울한 기분도 차츰 나아져서 힘차게 내일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생활 속에서 자율신경의 균형을 유지하고 또 회복시켜 세포 구석구석까지 질 좋은 혈액을 보내는 6가지 방법들을 알아봤다. 앞서 언급한 방법들은 생활 가운데 잘 실천하면 어깨나 허리, 무릎 등에 생기는 사소한 불편감이나 통증도 잡을 수 있는 강력한 방법임을 잊지 말자. 여기에 **요점은 과하게 하지 말고 부족하게 하지도 말라는 것이다. 즉, 10% 더 하지 말고 10% 부족 하지도 말라는 것이다.** 아무쪼록 일상에서 회복법을 잘 이해하고 실천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자.



##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스맨'이 되어라

| 김 일 환 집사 (화평 19)

요한아!

아빠, 엄마가 주례를 부탁하고 목사님께 기도받았던 것이 었그제 같은데, 시간이 흘러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에게 주신 선물인 아들이 자라 입영기도를 받았구나. 세월이 주마등처럼, 지난날들이 머릿속에 스쳐 가는구나.

요한이가 중 2 때, 두 살 위인 누나에게 힘겨운 일이 생기자 안타까웠는지 누나 책상에 깨알 같은 글씨를 써서 붙여 놓은 메모지의 메시지가 아직도 마음속 깊이 생생하게 남아 있다.

“누나! 나도 힘든 시기가 있었는데 솔로몬이 다윗왕에게 새겨 준 '이 또한 지나가리라'란 글귀로 위로받고 잘 넘긴 것 같아. 누나도 잘 넘기면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요한이가 지금까지 늘 부모의 말에 “예, 알겠어요” 하면서 순종하며 반듯하고 건강하게 자라주었듯이, 군 생활에 힘겨운 일이 있어도 잘 이겨내리라 믿고 기도할 것을 약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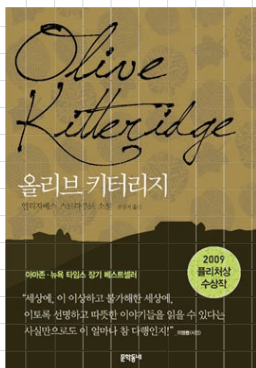
위임목사님께서 친히 선물로 국방색 성경을 건네주시면서 매일 조금씩이라도 읽으라고 말씀하실 때도 “예, 알겠어요”라고 대답했던 아들이!

지금까지는 아빠와 엄마의 예스맨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언제 어디서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영·육간에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스맨이 되기를 아빠는 오늘도 기도한다.

‘예스맨’ 아들 김요한! 군 생활도 파이팅! ^^

## 주제문 삽입 바람

| 최 승 란 (고척교회 도서관 책마을지기)



### 올리브 키터리지 | Olive Kitteridge



by 엘리자베스 스트라우트  
권상미 옮김 | 문학동네

다양한 인물들의 내면을 몰래 훑쳐보는 듯한 느낌이다.  
몰래 훑쳐본 그들의 갈등과 관계와 감정을 통해 솔직한 나의 내면도 들여다본다.

미국의 어느 조그만 시골 바닷가 마을을 배경으로 한 이 소설은 70대 중반의 '올리브 키터리지'라는 노년기에 접어든 여인이 주인공이다.

그녀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주변인들 또한 주인공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다.

그들은 각기 살아가는 모습과 사랑하는 방식이 다르고 서로 느끼고 이해하는 것도 다르다.

그 다름 속에서도 일관되게 일치하는 것이 있다면, 모두 자신의 상황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자신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감정을 보듬고 아파한다는 것이다.

때론 내 감정에 상처 받지 않기 위해 상대방부터 아픔을 찾아내 제 아픔을 덮고자 하는 모습도 있지만, 이런 면을 두고 어떻게 남과 비교하며 질투하고 흠잡고자 하는 우리 내면의 약한 모습은 아니라고 자신할 수 있겠는가.



노년기로 접어든 여인이 자신이 살아온 인생과 살아갈 날들을 생각해 본다.

스스로 참아낸 것에 대한 대견함이 크다. 가정을 지키고 남편과 의리를 지키고자 노력했다. 서로 존중하며 잔잔하게 평생을 함께 살아왔던 남편은 어느 날 갑자기 실명하고 의식을 잃어 요양원 생활을 하게 된다. 남편이 떠나고 홀로 남자 극심한 외로움은 밝은 햇살을 느낄 수 없게 한다.

삶의 의미가 대부분 아들에게 있었다. 엄격했지만 최선을 다해 사랑을 베풀었다고 자부했던 그녀는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생활하는 아들과 탐탁지 않은 며느리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기까지 많은 상실감과 아픔을 느낀다. 아들에게서 엄마를 불편해하고 거리를 두고자 하는 살갑지 않은 태도와 소소한 불신과 오해들 ..... 그녀는 강하고 억척스럽지만 남들 못지않은 상처와 흉터와 여린 가슴을 품고 있다.

눈을 감고 지친 그녀가 느낀 회한의 파도.

하지만, 늘그막에 진심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만난다. 그녀는 다시 햇살 좋은 방에서 햇살이 어루만진 벽을 사랑하게 되었다. 그 사람과 함께할 때는 탕탕한 젊은이들이 갈구하는 것만큼이나 노인들도 사랑을 갈구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내 차레가 돌아올 타르트 접시처럼 사랑을 경솔하게 내던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다.

70대 중반의 노년기에 접어든 여인의 심리는 끊임없이 성장하는 진솔한 인생을 경험하게 한다.





## 도심 속의 공원이 주는 여유 N Healing

4탄  
서울 중심의 상징인 N서울타워가 있는  
**남산공원**

| 이은경 집사 (사랑 39)



대한민국의 심장인 서울, 그 중심에 북악산·낙산·인왕산과 함께 서울 분지를 둘러싸고 있으며 서울을 대표하는 남산.

그 남산을 둘러싼 성곽길 주변에 조성된 <남산공원>을 소개해 보고자 한다.

서울 한 복판에 위치해 그 규모 또한 서울에서 가장 큰 공원인 남산공원은 봄에 푸르른 녹음과 잘 조성된 산책길, 그리고 각양각색의 꽃들이 피어나 화려한 모습과 함께 탁 트인 도심의 전망을 자랑하며, 외국인들에게도 서울의 아름다운 경치를 다양하게 보여주는 최고의 장소로 손꼽히는 곳이다.







남산의 둘레 길을 따라 천천히 걷다 보면 도심 속에서 느끼지 못한 상쾌하고도 청량한 공기를 느낄 수 있다. 소나무와 벚나무, 은행나무 등 다양한 나무가 우거진 녹음은 시원한 기운을 뿜어내 한여름에도 가볍게 산책하기에 너무나 좋다.

남산 정상에는 서울의 상징인 N서울타워가 있고, 남대문이나 장충동, 이태원동, 후암동 등 여러 곳으로부터 산꼭대기에 이르는 산책로가 있어서 접근성도 좋다.

그리고 명동 정화예대 근처에서 시작되는 케이블카를 타고 N서울타워 근처까지 단번에 올라갈 수 길은 편리함과 즐거움을 동시에 가져다준다.

N서울타워에 가까이 오르면 연인이나 가족들이 사랑의 마음을 담아 묶어놓은 수많은 자물쇠들이 걸려 있는데, 하나의 거대한 조형 작품처럼 볼만하다.



남산은 도심보다는 비교적 지대가 높은 산이다 보니 봄꽃들의 개화가 평균 한 주 정도 늦어져 서울의 봄을 좀 더 오랜 시간 만끽하게 해주는 장점이 있다.

특히 4월부터 시작되는 여러 가지 봄꽃들의 향연이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다. 개나리와 벚꽃을 시작으로 홍매화, 황매화 그리고 서울시에 조성해 놓은 튜립 꽃밭 등 1년생 꽃들이 만발하는 4, 5월엔 남산에 꼭 한번 들러보길 권한다.



산책과 더불어 다양한 꽃이나 나무들의 볼거리와 둘레 길을 걸으며 경험하는 건강한 시간까지, 여러 가지 즐거움을 가져다주는 남산은 최고의 힐링 스팟이다.

그래서 '서울의 젓줄'이 한강이라고 불리는 것처럼, '서울의 대표 휴식처'는 단연코 남산공원이라고 말하고 싶다.

2021년 봄에는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남산공원에서 N서울타워 주변과 산책로를 걸으며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여유와 힐링의 건강한 시간을 누리보시길.





## 그린스마트 미래 학교와 학교의 자율성

| 정 용 호 교장 (고척고등학교)

교육부는 2021년 2월 3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미래학교 사업이란 2025년까지 18.5조원의 예산으로 40년 이상 경과한 학교 건물 중에서 약 1400개 학교를 개축 또는 리모델링해 교수-학습의 혁신을 추진하는 미래교육 전환 사업으로,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 사업이자, 2021년 교육부 핵심 정책 사업 중 하나다. 미래학교에는 공간 혁신, 스마트교실, 그린학교, 학교 복합화 등의 요소가 포함돼 학생의 건강, 바른 인성, 효과적 학습 등에 필요한 미래형 학교 환경으로의 전환을 말하며, 이러한 환경에서 성장한 학생들은 타인을 배려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 가치를 체험할 수 있고, 지역사회의 교육 참여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에는 우리 국민 모두가 기대하는 미래교육에 대한 꿈이 담겨 있으며, 코로나19 이후 교육 대전환을 현실로 만들어 나갈 추진 계획도 담고 있다고 한다. 교육의 질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스스로 행복하게 성장하는 학교를 만들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교육부의 야심 찬 사업이라고 한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가 학생들이 행복하게 성장하도록 환경을 개선하고, 학생

중심의 미래형 교육과정과 주제 중심 프로젝트 학습, 온라인 학습 등 다양한 교수-학습이 가능하다는 교육부의 미래학교 종합 추진 계획은 단위학교 입장에서는 환영할 내용이다. 하지만 무려 18.5조원(국비 5.5조원, 지방비 13조원)이 투입되는 대규모의 사업 대상은 미래학교 전환 의지 등을 확인하고 사전 검토 등을 거쳐 최종 사업 대상 학교를 선정한다고 하는데, 이는 40년 이상 경과한 학교(약 12%)에 한정됐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모든 학교에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40년 이상 경과한 일부 학교에 한정된 사업이라고 한다면 분명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또, 미래형 학교 환경에서 성장한 학생들은 타인을 배려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 가치를 체험할 수 있다는 교육부의 계획안을 그대로 수용하기에도 분명 한계가 있다.

불과 5년 차이로 지원 대상 학교에서 제외되는 본교의 입장에서는 그저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다. 너무나 오래된(1985년 개교) 학교 건물에 유휴 교실도 넉넉하지 못해 교육과정에 그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본교에서는 교육청의 예산 지원으로 수업의 질을 높

이기 위해 모든 교실에 빔 프로젝트를 설치했고, 구청의 도움으로 방과 후에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자율학습실을 스터디 카페와 스터디 룸으로 리모델링해 학생들의 교수-학습 환경을 개선했지만 학력이 크게 향상됐다거나 학생들의 참여율이 그다지 높아지진 않는다. 이처럼 환경 개선만으로는 학생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학교가 학생들의 활기로 넘쳐나는 미래학교의 역동적인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도대체 환경 개선보다 더 절실하다는 단위학교의 자율성 강화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 코로나19 방역을 예로 다음과 같은 상황을 상상할 수 있다. 최근 보건학과 경제학의 많은 연구 결과가 공통적으로 등교 제한의 실효가 거의 없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오히려 방역 지침을 잘 지키는 학교가 아이들에게 더 안전할 수 있다고 말한다. 즉,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는 학교 교육의 사회적 중요성과 등교 제한의 비효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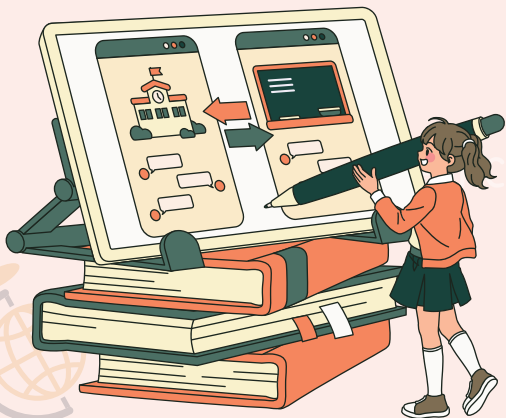


을 간과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도 신학기가 시작되자 슬그머니 사라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등교 제한이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행해지고 있다. 결국 단위학교에서는 방역 대책을 아무리 잘 계획하고 준비하더라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등교 제한 범위를 극복할 수 없고, 이런 상황이라면 전국의 모든 학교는 교육부나 질병관리청에서 지시한 내용 이상의 대책을 세울 필요가 없고 방역을 위해 더 많이 고민하고 노력할 필요도 없게 된다.

전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의 방역 지침을 안내하고 지원하는 것은 분명 필요하다. 이런 가운데 만약 학교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등교 범위를 허용한다면, 지역의 여건

을 충분히 반영하는 여러 가지 방역 대책에 의해 학생들이 전면 등교하면서도 교육활동을 위축시키지 않고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안들이 학교마다 다양하게 만들어질 것이다. 반면 현장의 자율성을 허용하지 않는 한, 전국에 있는 1만 2천여 개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생각해 낼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기대할 수 없다. 학생들의 안전을 담보로 감히 고양이의 목에 방울을 달 생각을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도전과 혁신 없이는 그저 백신에 의해 집단면역이 형성되는 시기만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와 같은 교육환경 개선도 매우 중요하지만, 단위학교 운영에 대한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하여 그 구성원들의 창의적인 사고활동에 따라 능동적인 교육활동 참여를 유도하는 것 또한 절실히 요구된다. 안전한 학교 울타리 안에서 화창한 봄 햇살을 받으며 모든 학생이 친구들과 함께 마음껏 뛰어다니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새로운 봄을 시작한다.



## 어린 마음에 예수님을 그림니다

— 영아부를 섬기며

| 이 성 레 권사 (영아부 교사)



비가 오는 오후, 잠시 영아부를 회상하다가 저도 모르게 미소가 떠올라 몇 자 적어봅니다.

영아부 예배를 드리러 예배실 입구 들어서면 아이와 부모를 위한 ‘기도자리’가 있습니다. 주일 아침마다 동그란 카펫을 펼쳐놓고 ‘기도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있다 보면 사랑스러운 아기들이 부모님과 함께 하나둘씩 들어옵니다. 반가운 인사를 나누고 난 뒤 부모님들이 아이를 남겨 두고 자리를 뜨면 전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가 예배드리려고 부모님과 함께 교회에 왔어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 안에서 잘 자라게 해 주세요. 부모님에게 지혜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를 마치고 눈을 뜨면 몇몇 아이가 줄 서서 기다리고 있다가 자연스럽게 제 무릎에 앉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비타민 사탕 하나를 손에 쥐어주고 나면 아이들이 짓는 미소를 볼 때마다 얼마나 사랑스럽고 예쁜지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행복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아이들을 무릎에 앉힐 수도, 안아줄 수도 없어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지만 곧 예전 같은 날이 올 것이라 믿기에 희망을 품고 기다려봅니다.

2018년 영아부가 시작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5년째를 맞았습니다. 영아부를

처음 세팅하던 때를 돌이켜보면, 험한 공간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렇게 무(無)에서 시작해 만 4년 만에 체계를 갖추면서 안정적으로 빠르게 정착하여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 그저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많은 분의 수고와 아낌없는 헌신이 있었기에 더 감격스럽습니다.

영아부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어린 아이들이 처음으로 예배와 신앙생활을 경험하게 되는 공동체입니다. **영아부는 아기를 돌보는 곳, 탁아하는 곳이라는 선입견이 있는데 아이뿐만 아니라 부모와 교사가 함께 믿음이 성장하는 곳입니다.** 아이와 부모가 예배자로 세워지며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자리입니다. 가정에서의 신앙교육 활동을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합니다. 이를 위해 담당 교역자와 교사와 부모가 함께 합심하여 신앙 양육에 대해 고민도 하고 기도하며 가정에서의 신앙교육 터전을 만들어 갑니다.

해마다 성장하고 매주 달라지는 아이들과 부모님들을 뵈 때마다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요.

저는 아이들이 태어나 처음 만나는 영아부의 교사이기에, 저들의 하얀 도화지 같은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한 컷이라도 남긴다면 그 이상 보람이 없을 것입니다.



## 아이들과 함께 하루를 묵상으로 마무리

— 소년부, 말씀 읽기 표를 활용해 성경 구절 필사

| 이 현 진 (소년2부 교사)

“당신은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청년부에서 진행한 양육과정이었던 제 자학교 수업 중에 목사님께서 제게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을 듣고 한 치에 고민도 없이 행복했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소년부 사역을 하던 제 모습이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온·오프라인을 오가며 사역 활동을 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이전의 교회학교 사역은 정신이 없을 정도로 바쁜 주일이었습니다. 활기가 넘치던 그 안에서 저는 기쁨과 행복이 넘쳤습니다. 소년부 아이들과의 소통, 함께하는 예배의 시간, 사랑하는 소년부 목사님과 선생님들까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었으며 제게는 또 하나의 가족이었습니다. 지금도 소년부는 제가 온 맘 다해 사랑하는 사역의 현장입니다. 하지만 조금 아쉬운 것은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아이들을 매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소통이란 것이 얼굴을 마주 보며 마음을 나뉘야 감정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것인데, 짧





은 안부조차 전자기기를 통해 전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안타까움과 아쉬움은 잠깐일 뿐, 돌아보면 저 역시 어느새 코로나19를 핑계로 사역을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저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있을 때, 제자학교에서 행복했던 때를 떠올리게 한 목사님의 질문이 다시 절 깨우치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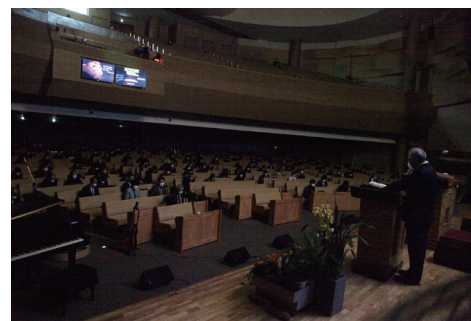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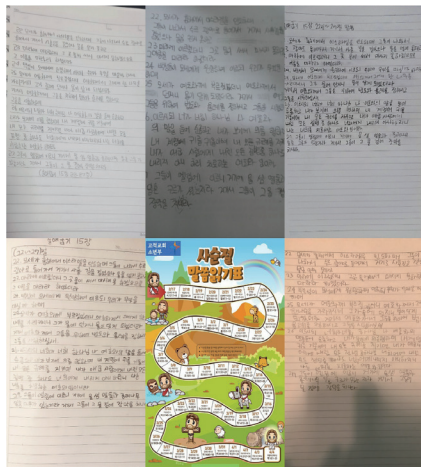
지금 교회는 코로나19 상황에 맞게 잘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온라인 방송을 구축하여 가정예배를 드림으로써 신앙의 회복과 목사의 시간을 갖도록, 교회가 기존 일반 사역에서 온라인 사역으로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알맞게 저 또한 소년부 6학년 담임교사로서 온라인으로 아이들과 소통하며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 취지에서 6-4반 아이들은 사순절 기간 동안 소년부에서 진행하는 말씀 읽기 표를 활용하여 매주 3회씩 성경 구절을 필사했는데, 놀랍게도 감사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방학이 끝나고 개학하며 바빠진 일정에서도 아이들은 늦은 시간까지 필사한 후 그 실천 사진을 꾸준히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무미건조했던 제 생활도 함께 필사에 참여함으로써 경건한 자세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끌벅적하게 웃

음이 넘쳐났던 옛 소년부의 시간을 되돌아보며, 그리웠던 추억과 코로나19의 현 상황을 마주하며 새롭게 나아갈 소년부를 기대하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셨나요? 이 어려운 시기에 잠시라도 하나님이 아닌 내 삶에 시선이 집중돼 있지 않으셨나요? 저 또한 그랬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며 소년부 아이들과 함께 하루의 끝을 묵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올바른 방향을 보여주십니다. 비록 지금은 코로나19 여파로 우리가 잠시 움츠리고 있지만 곧,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잠시 벗어나 있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은 어떨까요?



##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강사: 영락교회 김은성 목사

2021년 새봄을 시작하는 길목에서 '새봄축복대성회'가 지난 3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저녁(7시 30분)과 새벽(5시 30분)에 진행됐다.

영락교회에서 시무하시는 김은성 목사를 강사로 초청해 진행한 이번 대성회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란 주제의 말씀을 받으며 은혜의 시간이 됐다. 주제 성구는 디모데전서 6장 11~12절-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완전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은혜대예배당에서 열린 대성회는 온라인 생중계로 인터넷이 연결되는 어디에서나 동시에 참여할 수 있었다.

22~24일 3일간 가진 저녁 집회는 첫날 '우리에게 있는 것'(히 8:1), 둘째 날 '하나님의 인도를 원다면'(창 45:1~8), 셋째 날 '눈물겨운 승리'(렘 1:4~10) 등의 주제로 진행했으며, 새벽 집회는 23, 24일 이틀간 '진정한 사랑'(막 14:22~25), '다시 쓰는 1절'(시 15:1~5)을 주제로 각각 진행했다.

전체 집회는 조재호 위임목사가 인도했으며, 설교를 마친 뒤에는 모든 성도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 하이성품스쿨 4번째 성품 '인내'

| 김재광 목사 (교육 전담)

### '하이성품스쿨'이란?

하이성품스쿨은 가정과 교회에서 예수님 닮은 성품으로 양육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신앙교육 훈련 프로그램이다. 2018년 7월 첫 번째 성품 훈련인 '경청'을 시작으로 '순종'과 '정직'을 거쳐 올해 3월부터는 '인내' 성품 훈련이 진행 중이다.



이 프로그램은 고척교회 만의 성품 훈련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그동안 계속 발전을 거듭해 왔다. 자체 성품 세미나를 통해 성품의 정의와 교육 내용을 정하고, 교재의 모든 내용을 교육부 교역자들이 집필한다. 또한 여러 성도님의 도움과 헌신으로 자체 캐릭터를 만들었고 삽화와 손 유희, 율동도 제작하고 있다. 성품 훈련과 교재의 내용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올해는 '하이성품스쿨 사역팀'을 모집했다. 사역팀 내용은 일러스트, 책 편집, 스토리 구성, 작사·작곡, 손 유희, 찬양 율동 등으로, 여기에 앞으로 관심 있는 성도님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교회-가정의 연계와 부모를 통한 신앙 훈련이 중요해졌다. 그래서 여러 성품 활동을 직접 기획하고 촬영해 가정에서도 영상을 보고 함께할 수 있는 'Let's Do It'을 제작해 배포했다.

하이성품스쿨을 통해 고척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 닮은 성품으로 자라 가고 바른 성품의 소유자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 땅에 이루는 데 쓰임 받는 자들로 자라도록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 하이성품스쿨 '인내'

2021년 3월 7일부터 4월 25일까지 8주 동안 '인내' 성품 훈련을 진행했다. 주제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6절로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이다.

하이성품스쿨의 '인내'를 정의하면 이렇다.

"인내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어렵고 힘들어도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 하이성품스쿨 '인내 교육내용'

1주차 - 인내의 정의 "인내가 뭐예요?"

2주차 - 구약에서 배우는 인내 "욥은 인내했어요"

3주차 - 신약에서 배우는 인내

"인내하며 예수님을 전한 바울"

4주차 - 자연에서 배우는 인내 "나비 이야기"

5주차 -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내 "예수님의 인내 성품을 닮아가요!"

6주차 - 역사에서 배우는 인내 "서서평 이야기"

7주차 - 가정과 생활에서의 인내 "화나고, 되지 않을 때 인내해요"

8주차 - 인내의 축복 "인내로 좋은 열매 맺어요"



### 가정과 함께하는 하이성품스쿨

빠르게 변하는 세상 가운데 인내하기 힘든 시기를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다.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가정에서 주로 머물며 자유롭게 행동하기 어려운 때다. 어렵고 힘든 이 시기를 인내하며 보내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성경은 인내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다. 인내를 통해 약속하신 것을 받고, 인내를 통해 열매 맺으며, 인내할 때 주인의 뜻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한다.



인내 성품 훈련에는 어떤 유익이 있을까? 첫째, 인내의 가치를 알고 왜 끝까지 참고 견뎌야 하는지 배운다. 둘째, 지금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참고, 이루기 위해 인내를 실천한다. 셋째, 인내하는 과정 가운데 생기는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 알고, 참아내는 법을 훈련하며 인내를 기른다.

여러 가지 유익이 있는 성품 훈련은 단기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이루어진다. 교회에서의 인내 훈련뿐만 아니라 매일 가정에서 삶을 통한 훈련이 매우 중요하다. 가정에서도 인내 교재를 받으시면 꼼꼼히 살펴보고 매주 인내 훈련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 성품 교육과 더불어 교육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Let's Do It' 영상을 주차에 따라 매주 제공한다. 자녀와 같이 시청하면서 재미있는 활동을 통해 가정에서도 인내 훈련을 하시길 바란다.

### 어떻게 '인내'를 가르칠까?

자녀들이 커가면서 부모가 실수하는 부분 중 하나는 자녀가 겪는 고난을 잘 헤쳐나 가도록 도와주지 못하는 것이다. 자녀가 어렵고 힘들어할 때 못 본 채 하는 게 어려운 것이 부모의 마음이다. 그래서 자녀를 대신해 숙제를 해주거나, 친구 관계의 어려움을 나서서 해결해 주거나, 스스로 결정해야 할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게 되면, 자녀는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참고 기다리며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기보다는 손쉽게 부모에게 맡겨버리게 된다.

살아가면서 자녀들도 부모인 우리처럼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된다. 이때 고난을 피하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참고 견디며 극복할 수 있으려면 '인내' 성품 훈련이 필요하다. 끝까지 맞서기보다 포기하고, 분노하고, 회피하는 것이 더 쉽다. 그만큼 인내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인내' 훈련을 통해 자라나는 고교회 자녀들은 당당히 맞닥뜨린 상황에 맞서며 인내의 열매를 얻게 될 것이다.

부모로서 자녀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보기 힘들겠지만 부모가 먼저 인내하며 기다려 주시길 바란다. 인내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허락하셨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참고 기다리는 것이다. 인내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된다. 인내했을 때, 참고 견디

기쁨을 누리게 되며 그만큼 자라고 성장하게 된다. 인내하는 가운데 힘들어하고 때로는 분노하고 낙심할 수 있는 자녀들이 끝까지 견딜 수 있길, 이겨낼 수 있길 기도하고 격려하며 용기를 북돋아 주시길 바란다.

자녀들과 인내를 위한 약속을 하고 그대로 가정에서 지켜 나가는 것이 성품 훈련을 위해 중요하다. 모든 자녀가 '인내' 성품 훈련을 통해 예수님 닮은 아이로 자라 가길 축복한다.

#### [자녀 인내 약속]

-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아도 쉽게 분노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참고 기다리겠습니다.
- 무슨 일이든 잘 끝낼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부모 인내 약속]

- 자녀가 주어진 일을 인내하며 잘할 수 있길 기다리겠습니다.
- 자녀를 위해 기도하며 격려하겠습니다.
-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자녀와 함께 찾고 인내를 실천하겠습니다.

####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 약 1:4 -



어와나, 2021 입단식

## 꾸준함·성실함·저력

| 한 신 목사 (어와나 불티·티앤티 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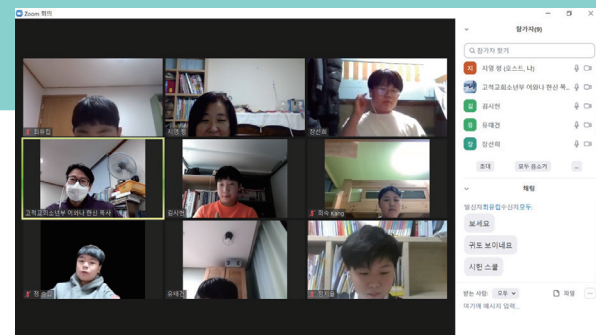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어와나(Awana) 불티·티앤티는 올해도 변함없이 개강 예배를 드리며 신학기의 문을 열었다. 작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는 어와나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던 많은 교회에 영향을 끼쳤다. 어와나를 새롭게 시작한 교회의 경우에도 한 해 이상 활동을 금지당하는 사례까지 생겼다. 고척교회 어와나 역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돌아오는 주일에 불티·티앤티 입단식을 진행하기로 했다. 물론 모든 일정은 정부의 지침을 준수하여 진행하고, 합법적인 모임을 만들어 가고자 노력한다. 불티·티앤티 입단식을 시작으로 어와나의 기타 모든 부서가 일정을 조금씩 다르게 하여 입단식을 진행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커비에서 지나가지 전체 부서가 한데 모여 진행했던 입단식의 전경은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입단식 문화를 낳았다.

코로나19 사태 후 바뀐 어와나의 모습은 늘 새로운 연출과도 같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어와나의 모든 친구가 어와나 예배 이후 체육활동을 위해 체육관에 모였다. 반

선생님은 아이들이 각자 집에서 학습한 말씀 암송을 체크하며, 소중한 말씀 암송 시간을 가졌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모두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 시간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그래도 어와나는 저력 있는 부서다. 작년 코로나19 발생 뒤인 2월부터 각 가정에서는 부모님이 자녀들의 말씀 암송 영상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암송 영상을 올리면서 부모님이 직접 자녀들의 영성 상태를 체크하기 시작했다는 점은 참 감사한 일이다.

영상으로 꾸준히 올리는 작업은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비록 영상이긴 하지만 이어진 야외 미션 역시 2년째 순항 중이다. 그뿐 아니라 어와나는 교사들의 영성 활동까지 살뜰하게 챙긴다. 코로나19 이전부터 수요일예배 후 오랜 시간 시행한 어와나 교사 기도회 또한 '인터넷 줌 기도회'로 날짜만 바꾸어 매주 토요일 오전 8시부터 진행한다. 가장 많이 모일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고자 중간에 여러 차례 시간을 바꾸다가, 지금의 교사 기도회 시간으로 정착됐다. 또, 어와나 콘퍼런스와 영성 수련회도 일 년에 두 차례 이상 실시한다.

언제부터인지 '어와나'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다. 바로 '꾸준함' '성실함' '저력'이다.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을지라도, 먼 훗날 주를 향한 마음의 열정은 드러나게 될 것이다.** 먼 미래를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 어와나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며 내일을 준비한다. 아직은 많이 어리지만 주를 향한 이들의 발걸음을 기도로 응원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살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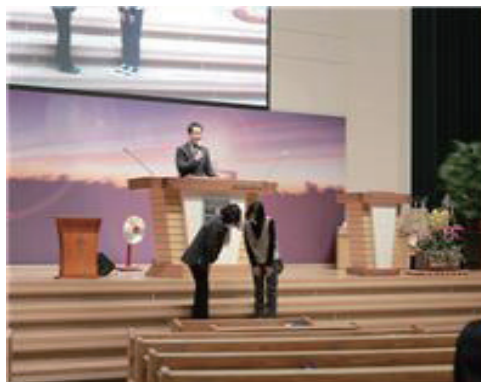




## 청년부 이끌 마을장 등에 임명장 사역자그룹 별로 비대면으로 진행

청년부는 1월 17일부터 2월 14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사역자그룹 임명식을 가졌다. 평소 사역자그룹이 다 같이 단상에 올라가 임명식을 진행했던 것과 달리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임명식으로 진행했다.

1월 17일 마을장을 시작으로 리더-헬퍼-사역팀장 순으로 이어진 이번 임명식은 각 리더십의 간단한 소개와 각오를 담은 영상으로 대체했다. 그리고 각 사역자그룹 중 대표 한 명이 예배 중 십자가 목걸이를 받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어렵고 특수한 상황인데도 한 영혼을 위해, 청년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기로 결단한 마을장, 리더, 헬퍼, 사역팀장들이 올해 사역하는 가운데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한다.



## 삶의 자리에서 함께한 신앙수련회 온라인으로 진행 ... 하나님과 더 가까이

청년1부가 온라인으로 열린 스프링 신앙수련회를 통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졌다. 'The Sign as Gospel'이라는 주제로 가진 이번 수련회는 온라인 채널을 통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참여할 수 있었다.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두고 요한복음에 나타난 일곱 가지 표적을 따라 올라간다는 큰 틀 아래 영상으로 하는 QT, 온라인 라이브 워십, 복음에 대한 강의와 나눔, 보이는 라디오, 레크리에이션 등 다양한 콘텐츠를 1부 청년들이 함께 공유하고 즐기며 수련회를 마쳤다.

함께 얼굴을 맞대고 모여 수련회를 진행할 수는 없었지만, 오히려 삶의 자리에서 하는 수련회였기에 각자 놓여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만나지 않았을까 평가한다.

복음으로 하나되는 청년부  
2021 청년1부 On-line 스프링 신앙 수련회

### The Sign as Gospel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요 2:11

| SUN | MON | TUE | WED | THU | FRI | SAT |
|-----|-----|-----|-----|-----|-----|-----|
|     |     |     |     |     |     |     |
|     | 21  | 22  | 23  | 24  | 25  | 26  |
|     | 28  |     |     |     |     |     |

2월 22일 ~ 2월 28일  
7일간  
삶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복음이 뭘까?**  
질문을 가지고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 표적을 따라가는 7일

### 온라인 수련회는 처음이지?

영상으로 하는 큐티  
LIVE  
온라인 라이브 워십  
복음에 대한 강의 & 나눔  
feat. 구평이츠  
보이는 라디오  
레크리에이션

# 부활의 은혜·축복·능력이 가득하길 소망하며

2021년 고난주간을 맞이해 새벽기도회를 3월 29일부터 4월 3일(오전 5시 30분 ~ 6시 15분)까지 6일간 진행했다.

‘고난의 메시아를 따라서’란 주제로 진행한 이번 기도회에서는 조재호 위임목사가 이사야 42장과 52장, 53장을 중심으로 설교했다.

조재호 위임목사는 첫날 ‘내가 붙드는 나의 종’(사 42:1~4)을 제목으로 한 설교에 이어 둘째 날 ‘놀라운 일’(사 52:13~15), 셋째 날 ‘누가 믿었느냐’(사 53:1~3), 넷째 날 ‘질고와 슬픔을 짊어진 길’(사 53:4~6), 다섯째 날 ‘잠잠한 양이 되어’(사 53:7~9), 여섯째 날 ‘고난을 넘어 영광으로’(사 53:10~12) 등을 제목으로 각각 설교했다.

특히 이번 기도회 대표기도는 안수집사-권사-집사 순으로 정창희 안수집사, 부영미 권사, 김종란 집사, 윤정희 권사, 최두섭 안수집사, 강영 안수집사 등이 요일별로 각각 기도했다.

기도회는 시작 전 찬양에 이어 고난주간 영상을 시청하고, 대표기도와 성경봉독 특송에 이어 조재호 위임목사가 설교하며 기도회 참석자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기도회는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라 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해 어디에서나 기도회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진행했다.



한편, 4월 4일 부활절 새벽에는 ‘2021년 부활주일 촛불새벽기도회’를 은혜대에 배당에서 진행했다.

김은희 목사의 인도에 따라 진행한 촛불새벽기도회에서는 이태진 장로가 기도하고, 장로 중창단 아나스타시스가 특송을 한 데 이어 조재호 위임목사가 ‘예수, 절대 희망’(마 28:1~10)을 주제로 설교했다.

설교 후에는 LED 촛불을 점화한 뒤 부활의 인사 나눔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고, “부활의 은혜가 모두에게 가득하길, 부활의 축복이 교회 모든 곳에 임하길, 부활의 능력이 우리나라와 세계에 생명과 평화로 나타나길” 소망하며 인사를 나누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 그라티아 전시회



### Rose Garden

작가: 김정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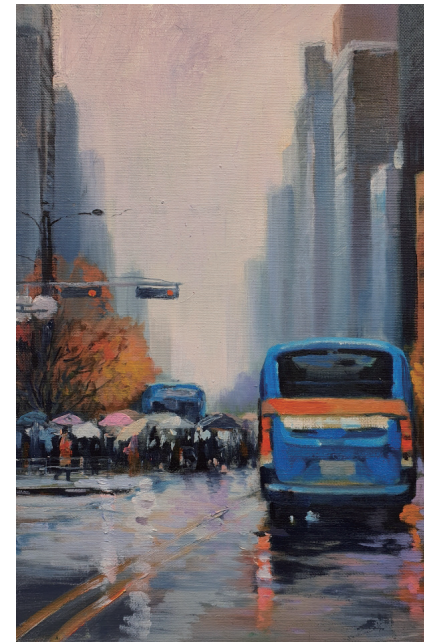
장미가 가득한 정원에서 막 땀 흘려 장미 부케를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꽃 같은 날이 오기를 바라며 그리던 그림이 거의 1년이나 멈춰 있었습니  
다. 봄을 들 시간조차 내기 힘들었던 시기에 이번 작품은 유독 오래 붙잡고 있었  
어 인지 전시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큰 기쁨입니다. 게다가 카페 그라티아에 전시  
를 하게 된 것이 벌써 5회째라니 감회가 새롭기만 합니다.  
제 그림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하루빨리 우리에게 꽃 같이 행복하고 자유로운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 Bloom

작가: 서옥선

예쁘고 커다란 꽃들을 보고 있으면 아름다움과 고  
통을 느낀다. 그 큰 꽃잎들을 피워내는 꽃줄기의 힘  
이 놀랍고 경이롭다. 마지막 한 잎까지 올바로 피워  
내느라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아냈을까. 만개한  
꽃들은 우리 매일의 삶과 닮아있다. 꽃 하나 제대로  
피우려 노력한 시간과 열정은 그 자체로 축하받아  
마땅하다. 모든 꽃은 아름답다. 이른 봄, 보글보글  
올라오는 작은 풀꽃들도, 손바닥만 한 꽃송이를 가  
진 큰 꽃들도 모두 아름답고, 또 고통스럽다. 꽃송이  
마다 들어있는 그 많은 감정을 온전히 감상하기에는  
너무 짧은 봄이다.



### 출근하는 길

작가: 이미영

우리네 일상이기도 하고 하루의 시작이기도  
한 아침을 그린 작품이다. 어떤 이에게는  
지옥 같은 출근길이 다른 이에게는 설렘을  
안겨주는 길일 수 있다. 특히 비 오는 날 출  
근길은 각자 다른 느낌의 아침으로 다가오  
지 않을까?



memo.

